

산업특성 및 기업수명주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김상명** · 박성욱*** · 정희선****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기업수명주기에 따른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이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본다.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그 수명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수명주기별 조세회피성향의 차이는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기업특성 요인들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기업특성 요인들은 기업수명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증분석 결과 도입기에는 제조업을 비롯하여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전반적으로 조세회피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출판·영상·방송통신 서비스업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는 도입기부터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산업의 경우 주로 인적자원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낮아 감세수단이 적다보니 사업초기부터 조세회피성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장기의 높은 조세회피 성향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타 산업과 비교하여 성숙기에 조세회피성향이 더욱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건설업은 오히려 성숙기에 조세회피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설업의 조세회피성향이 수익성 수준에 민감하지 않고, 금융비용 부담수준에 민감하다는 선행연구의 발견과 일치한다. 즉, 외부자금에 대한 수요가 적고 금융비용 부담수준이 낮은 성숙기에는 유동성이 풍부함에 따라 당장의 현금유출을 줄이려는 공격적인 조세회피 유인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쇠퇴기에는 대부분 업종에서 조세회피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산업특성이 기업수명주기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기업특성과 아울러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조세회피, 기업수명주기, 산업특성, 현금흐름패턴

* 본 논문은 주저자의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대폭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본 학위논문의 심사위원님들과 논문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박사, 세무사, ktax0732@naver.com, 주저자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교수, sopark@khu.ac.kr, 교신저자

****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hschung@sejong.ac.kr, 공동저자

논문접수일 2017년 5월 22일

1차수정일 2017년 9월 8일

게재확정일 2017년 10월 24일

I. 서 론

기업은 그 소속 산업에 따라 유사한 경제적인 인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Reynolds(1986)와 Gordon(1985), Phillips(1994)는 기업은 산업고유의 기술 또는 업종에 따른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에 따라 기업의 문화는 산업별로 유사한 특성을 갖게 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별로 나타나는 공통적 특성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 관련 제도 및 법규 역시 많은 부분 산업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세법을 보면, 기업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액감면 및 공제 등 조세혜택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상자 선정시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그 혜택에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하여 납세의무를 차등화 함에 있어서도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관련 예로, 중소기업 기준을 판정함에 있어 업종별로 차이를 두고 있고,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 선정 및 추계신고대상자를 구분함에 있어서도 업종에 따른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산업특성은 조세분야 외에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관련 예로, 정부는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을 산업별로 설계하고 있다. 또한, 신용평가기관은 신용평가지 회계정보에 대한 가중치를 업종별로 차이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김광용·정수용(1999)은 산업특성별로 신용평가 예측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산업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신용평가모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박수근·송혁준(2003)은 회계정보의 주가관련성이 산업별로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산업별 회계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세제도를 비롯하여 경영 관련 여러 제도들은 산업별로 공유되는 문화 및 이에 따른 산업군별 기업특성을 바탕으로 산업별로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다시 해당 산업군별로 기업특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산업에서는 유사한 경제적인 인식을 하고, 유사한 경영(세무)전략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산업에 따라 기업의 성과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Wernerfelt and Montgomery, 1988 ; Rumelt, 1991). 또한, 이에 따라 김경애·김재범(2010)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성과가 제조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등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각 산업별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차이가 있다면,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 하려는 경영자의 행동 역시 산업별로 차이가 발생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태수·정준수·지성권(1999)은 경영자보상과 경영성과간의 관계가 산업별로 차이가 있으니 경영자에게 산업별로 적합한 성과측정치를 활용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업이 속한 상황과 아울러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Miller and Friesen(1980)은 기업의 수명주기에 따라 기업의 경영환경, 경쟁상황 등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경영자의 전략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상명·박성욱(2016)은 기업수명주기에 따라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수명주기와 조세회피의 관계는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에 따라 산업별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기업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단편적으로 분석하였던 것을 확장하여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이 이러한 기업특성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수명주기가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특히 기업수명주기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임의적인 분류방식이 아니라 현금흐름패턴을 이용하여 측정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한다.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기업수명주기 효과와 산업효과를 복합적으로 살펴보는 실증분석을 통해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가설을 설계한다. 제Ⅲ장에서 표본선정 및 연구설계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Ⅳ장에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이 후 제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가설설정

1. 선행연구

가. 기업수명주기가 보고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수명주기가 경영자의 보고이익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재무보고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고윤성·김재승(2012)은 기업수명주기에 따라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성장기와 성숙기에는 보고이익을 줄이는 조정을 하는 반면, 쇠퇴기에는 이를 증가시키는 조정을 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에 대해 성장기와 성숙기에는 미래 보고이익이 감소할 경우를 대비해 이익유연화 유인이 강한 반면, 쇠퇴기에는 부족한 현금흐름과 낮은 재무성과에 따른 재무보고비용의 증가를 줄일 목적으로 이익을 상향 조정할 유인이 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배한수·김경화(2013)는 기업수명주기와 실제이익조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성장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이나 시장개발을 위한 지출을 하는 등 이익

을 감소시키는 조정이 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쇠퇴기에는 적자 또는 이익감소에 대응하여 단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개선하고 신규자금조달을 위하여 이익을 높이는 실물활동 조정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성장기 기업이 이익을 하향조정할 경우 이는 이익의 지속성 및 미래이익예측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차기 경영성과가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반면, 쇠퇴기에 이익을 상향조정할 경우 이러한 과정에서 경영자의 원가절감과 단기적인 성과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차기의 경영성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실제 이익조정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며 추가수익률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기업수명주기별로 수익비용대응이 이루어지는 정도 및 비용인식 시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연구도 있다. 백원선·박성진(2013)은 성숙단계의 기업들이 성장단계 및 쇠퇴단계의 기업과 비교하여 수익비용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용의 인식 시기를 통한 이익조정을 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성장단계의 기업은 성숙단계의 기업과 비교하여 비용을 조기에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쇠퇴기의 기업들은 성숙기의 기업에 비해 비용의 인식을 늦추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기업수명주기가 경영자의 세무보고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상명·박성욱(2016)이 있다. 이들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수명주기 단계별로 LTD(재무이익과 세무이익 차이) 및 조세회피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장단계와 성숙단계에서 LTD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반면, 쇠퇴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단계와 성숙단계에서 재무보고이익을 높이거나 또는 세무보고이익을 줄이는 조정을 하는 반면, 쇠퇴기로 갈수록 이러한 유인이 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 소속산업이 보고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이 속한 산업 역시 경영자의 보고이익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 먼저 소속 산업이 재무보고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진배(2004)는 업종별로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때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측정치로는 기업의 지배구조, 회계·감사시스템, 공시, 회계정보의 내용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통신업의 회계투명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금융업과 전기·가스업, 의료정밀장비제조업, 전기·전자업에 이어 서비스업과 통신장비제조업 및 유통업 순으로 회계투명성이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이·목재 제조업, 건설업, 운수장비제조업은 회계투명성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성환·손성규(2011)는 산업별 경쟁환경, 기술환경, 사업형태특성이 기업의 회계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 회계정보의 품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첨단기술 산업의 경우 투자자 등 외부이해관계자

가 첨단산업에 대한 이해가 낮아 회계정보의 품질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수주형 산업은 수입금액의 판단 등과 관련하여 경영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 회계정보의 품질이 낮으며, 규제 산업의 경우에는 외부이해관계자의 통제로 인하여 회계정보의 품질은 높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소속산업이 기업의 세무보고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춘래·최평윤(1997)은 업종별 조세회피성향을 분석한 결과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 건설업, 제조업 및 기타업종과 비교하여 조세회피성향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 속한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이 타업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춘래·최평윤(1997)은 제조업의 경우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충분한 세제지원을 받고 있어 세금을 줄이려는 유인이 낮고, 건설업은 조세회피 전략이 적발될 가능성이 높고 적발되었을 경우 해당 금액이 큰 규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업별 차별적인 조세정책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를 보면, 심충진(2005)은 실증분석을 통해 운수업이 다른 산업보다 조세부담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건설업과 도소매업은 상장여부 및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그 조세부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비상장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조세부담이 낮은 반면, 비상장 도·소매업은 다른 산업보다 조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락(2006)은 건설업에 비하여 제조업에 편중된 조세지원으로 인해 산업간 성장성과 효율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고용효과가 큰 산업이므로, 균형 있는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건설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세지원을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완중·유희경(2007)은 외식산업의 조세공평성과 조세회피성향을 분석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외식사업자들의 조세공평성은 낮게 나타났으며 조세회피성향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외식사업자 중에서 주점과 기타의 외식사업자는 한식, 일식, 중식, 양식의 외식사업자보다 수직적공평성과 세율공평성에 있어서 조세공평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수(2015)는 특정 산업에 치우친 조세지원은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의 조세제도가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식기반 자본의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산업별(제조업) 조세부담의 격차를 줄일 것을 주장하였다.

산업별 조세회피성향과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주는 기업특성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구체적으로, 고윤성·이정화(2008)는 조세회피성향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데 도소매, 서비스, 제조, 건설업 순으로 조세회피성향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업종별로 조세회피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조세부담수준, 수익성, 소유자지배기업여부, 금융비용 부담수준이 조세회피수준과 양(+)의 관계가 있는 반면, 조세혜택수준은 음(-)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반면, 건설업은 금융비용 부담수준과 조세혜택수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조세회피성향이 다른 업종에 비하여 높은 유통업의 경우 조세부담수준과

수익성, 그리고 조세혜택수준이 조세회피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 본 연구와 기존연구의 차이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해당 기업의 수명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회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산업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수명주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수명주기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수명주기에 따른 기업들의 평균적인 조세회피 성향을 보여준 것으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효과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이 기업수명주기별로 그 소속 산업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가설설정

선행연구에서는 조세회피성향이 기업의 수명주기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별로도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업종별 조세회피 성향을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이 가장 낮은 반면, 유통업과 음식·숙박업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춘래·최평윤, 1997; 고윤성·이정화, 2008). 여기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의 조세회피성향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지나치게 편중된 조세지원 때문에 다른 업종보다 조세회피의 필요성이 적으며(박춘래·최평윤, 1997; 김영락, 2006; 김학수, 2015), 건설업의 경우에는 노무비와 가공매입을 이용한 비자금 형성(고윤성·이정화, 2008) 등의 방법을 통해 조세회피를 많이 할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 세무조사에 의한 높은 적발가능성과 추정세액에 대한 높은 부담(박춘래·최평윤, 1997), 그리고 건설입찰을 위한 시공능력평가(고윤성·이정화, 2008)와 건설업 면허요건 충족 등을 위하여 조세회피보다 채무이익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이 더 크기 때문에 조세회피성향이 낮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유통업과 음식·숙박업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결제 이외에 현금거래의 비중이 높고, 무자료거래로 인해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고윤성·이정화(2008)는 조세회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산업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조세부담정도, 조세혜택수준, 수익성, 금융비용 부담수준, 소유자지배기업 여부가 조세회피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다시 산업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조세혜택수준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조세회피수준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조세회피수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제조업은 수익성, 금융비용 부담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면,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수익성과 조세부담수

준이 조세회피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은 다른 요인보다 금융비용 부담수준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발견은 조세회피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산업별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산업별로 조세회피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요인들은 기업이 처한 수명주기 단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제조업의 경우 조세회피수준이 여러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명주기 단계별 조세회피성향을 하나의 방향으로 단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수명주기 단계 중 성숙기의 특징은 매출액과 이익이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극대화 되는 단계이다. 따라서 조세회피가 수익성에 영향을 받는다면 성숙기에 조세회피성향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성숙기는 현금유입이 현금유출보다 많아서 외부자금을 상환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숙기에는 금융비용 부담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조업의 조세회피수준이 금융비용 부담수준에 주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예측이 모두 가능하다. 우선 금융비용은 대표적인 감세수단(tax shield)으로 금융비용이 줄어들게 될 경우 경영자가 의도하는 법인세 부담액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인 조세계획을 할 가능성이 있다(DeAngelo and Masulis, 1980). 그러나 금융비용이 줄어들 경우 유동성이 풍부해져 당장의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공격적인 조세계획에 대한 유인이 낮아질 수도 있다. 한편, 제조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여러 조세혜택을 제공받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 전반에 조세회피수준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세혜택은 기업의 투자활동이 왕성한 도입기에서 성장기에 거쳐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조세혜택이 제조기업의 조세회피수준을 감소시키는 영향은 도입기와 성장기에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설업의 경우에는 금융비용 부담수준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데 외부자금의 필요성은 기업수명주기 단계 중 성숙기에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설업의 경우 성숙기에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조세회피 성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성숙기에 낮은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해 풍부한 유동자금을 이용하여 세금을 기꺼이 납부한다면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조세회피 성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금융비용 부담수준이 낮다보니 감세수단이 줄어들어 전략적인 조세계획에 몰두한다면 다른 산업보다 높은 조세회피 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조세회피수준이 수익성에 따른 조세부담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므로 다른 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성숙기에 조세회피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의 세부업종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정보, 문화와 관련한 서적, 신문, 영화, 라디오 및 텔레비전을 이용한 방송, 유·무선 통신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업종이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건축설계, 엔지니어링과 연구개발 활동 또는 법무·회계법인을 통한 법무 및 회계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다. 여기에서 ‘출판, 영상, 방송

통신·정보서비스업'은 사업초기에 매우 큰 설비투자의 필요성이 있는 업종이다. 따라서 사업초기에 타 산업에 비교하여 외부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세회피의 유인보다는 재무이익을 높이려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한, 외부자금조달에 따른 금융비용의 절세효과로 인해 공격적인 조세회피 유인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업종의 특성상 사업 초기단계에 초기투자비용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외부 자금에 대한 수요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비부채 및 부채의 감세효과가 적어 사업초기에도 조세회피성향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수명주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기로 한다.

가설1: 기업수명주기에 따른 조세회피수준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1: 제조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도입기에 조세회피 성향이 낮다.

가설1-2: 서비스업 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도입기에 조세회피 성향이 높다.

가설1-3: 건설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성숙기에 조세회피 성향이 낮다.

가설1-4: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성숙기에 조세회피 성향이 높다.

III. 연구설계 및 표본선정

1. 연구설계

가. 주요변수의 측정

(1) 산업의 분류

산업은 유사한 성격의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자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산업 분류는 생산단위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활동 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 분석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성과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해 놓은 것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의 분류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산업분류는 통계청에서 고시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2) 기업수명주기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수명주기에 대한 측정치로 주로 Anthony and Ramesh(1992)의 방법론을

이용하고 있다.¹⁾ 구체적으로, Anthony and Ramesh(1992)는 기업의 매출액증가율, 자본적 지출 증가율, 배당성향, 기업연령 값을 포트폴리오 점수로 생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수명주기를 단계별(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러 변수들을 분위수별로 나누고 이를 합산하는 방식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구성요소들의 분포에 대한 제약적인 가정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여러 기업요인 중 어떠한 요소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명주기가 임의로 분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Dickinson(2011)은 기업의 수명주기 측정 관련 Anthony and Ramesh(1992) 방법론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현금흐름 패턴을 이용하여 기업 수명주기를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Dickinson(2011)의 수명주기 분류방법을 보면, 현금흐름을 활동별로 세 가지로 구분한 후 각 활동별 현금흐름의 유출입 패턴을 통해 수명주기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표 1>).²⁾

구체적으로 도입기는 고객확보와 시장지위 구축을 위한 광고 등으로 대규모의 비용지출이 있

1) Anthony and Ramesh(1992)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기업수명주기를 측정한 연구

저 자	측 정 치
Anthony and Ramesh(1992), 권영도(1996), 고영우 등(2009)	매출액증가율, 자본적지출 증가율, 배당성향, 기업연령
Bens et al.(2002)	매출액증가율, 자본적지출 증가율, 연구개발비지출 증가율, M/B비율
DeAngelo et al.(2006)	자본금에 대한 이익잉여금 비율
최현섭 등(2006), 박원·권예경(2011), 백원선·박성진(2013), 최관 등(2015)	매출액증가율, 유·무형고정자산 증가율, 종업원증가율
권수영, 문보영(2009)	매출액증가율, 자본적지출 증가율, 기업연령, 자본금에 대한 이익잉여금 비율
박원, 박상규(2010)	매출액증가율, 자본적지출 증가율, M/B비율, 종업원증가율, 자본금에 대한 이익잉여금 비율
고윤성·김재승(2012), 배한수·김경화(2013)	매출액증가율, 자본적지출 증가율, M/B비율, 종업원증가율, 기업연령, 자본금에 대한 이익잉여금 비율

2) 특히 Dickinson(2011)의 현금흐름 패턴을 이용한 기업수명주기 측정 방법은 기업수명주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별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할 때 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Anthony and Ramesh(1992) 방법을 이용하여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매출액성장률, 배당성향 등의 측정값들을 그 크기에 따라 5분위수로 나눠 5그룹으로 분류하게 되면 예를 들어, 매출액성장률이 높은 특성을 갖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모두 성장기로 분류되는 등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Dickinson(2011)의 방법을 이용할 경우 만약 기업수명주기별로 각 활동별 현금흐름의 부호 패턴이 특정 업종에서 특정 양상만을 보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예를 들어, 서비스업종이 대부분 영업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현금흐름이 양(+)의 값이고 투자활동으로부터 현금흐름이 음(-)의 값이어서, 서비스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성장기로 분류되는 경우), <표 2>를 보면 현금흐름표상 각 활동의 부호에 따라 기업수명주기를 분류할 경우 업종별로 관측치가 각 수명주기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Dickinson(2011)의 방법은 전체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무리가 없으며 Anthony and Ramesh(1992)의 방법보다 우월할 수 있다.

는 반면 매출은 아직 현실화 되지 않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음(-)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서는 신규투자가 필요하므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역시 음(-)의 값을 갖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를 위해 외부자금을 차입함에 따라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양(+)의 값을 가질 것이다(Spence, 1981 ; Jovanovic, 1982 ; 박원 · 박상규, 2010 ; Barclay and Smith, 1995). 따라서 재무활동으로부터 순현금유입이 있는 반면 영업 및 투자활동으로부터 순현금유출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수명주기 상 도입기로 분류한다. 다음으로 성장기에는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은 양(+)의 값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급격한 매출증가에 대응한 추가 설비투자로 인해 투자활동에서는 여전히 음(-)의 현금흐름이 예상되며 이를 위해 외부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양(+)으로 예상된다(Spence, 1981 ; Barclay and Smith, 1995). 즉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에서는 순현금유입이, 투자활동에서는 순현금유출이 나타나는 경우 성장기로 구분한다. 한편 성숙기는 수입과 수익이 최고가 되는 시기로 영업활동에서 순현금유입이 있을 것이며 신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로 인해 투자활동에서 순현금유출이 예상된다. 그리고 재무활동에서는 높은 매출액과 이익으로 외부조달 자금을 상환함에 따라 순현금유출이 예상된다(Spence, 1981 ; Jovanovic, 1982 ; Wernerfelt, 1985 ; Barclay and Smith, 1995). 이에 따라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이 양(+)이고, 재무 및 투자활동으로부터 현금흐름이 음(-)의 값을 보이면 성숙기로 구분한다. 다음 단계로 수축기에는 각 활동별 현금유출입 패턴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끝으로 쇠퇴기에는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이익이 감소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출이, 새로운 투자보다는 보유자산을 처분하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투자활동에서 순현금유입이 예상된다. 한편 쇠퇴기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패턴에 대한 기대는 일관적이지 않다. 회수된 투자자금으로 외부조달 자금을 상환하여 음(-)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더불어 합병 및 인수를 통한 신규시장개척을 위해 외부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양(+)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모두 가능하다(Hribar and Yehuda, 2008 ; Wernerfelt, 1985 ; 백원선 · 박성진, 2013). 이에 따라 영업활동으로부터 순현금유출이 있고 투자활동으로부터 순현금유입이 있는 경우 쇠퇴기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섯 가지 단계 중 현금흐름의 예측이 불분명한 수축기를 제외하고 기업 수명주기 단계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이용하기로 한다.

〈표 1〉 수명주기 단계별 현금흐름패턴

현금흐름유형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영업활동	(-)Cash Flows	(+)Cash Flows	(+)Cash Flows	(-) Cash Flows
투자활동	(-)Cash Flows	(-)Cash Flows	(-)Cash Flows	(+) Cash Flows
재무활동	(+)Cash Flows	(+)Cash Flows	(-)Cash Flows	(+/-)Cash Flows

(3) 조세회피측정치

조세회피추정치로는 재무보고이익과 과세소득 차이(book tax differences, 이하 BTD)와 더불어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이익조정을 감안한 BTD(DD_BTD)를 이용하기로 한다. BTD를 구하기 위해서는 과세소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는 공시 정보가 아니므로 다음과 같이 추정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법인세부담액은 재무제표의 법인세비용에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액³⁾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인세 부담액을 법인세 최고세율(t^4)로 나누어 재무보고이익을 추정한다(식 (1)). 이렇게 계산한 추정세무이익이 음(-)이 되는 기업들은 조세회피의 유인이 낮거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추정세무이익이 0보다 큰 기업만으로 표본을 구성하기로 한다.

$$\text{추정세무보고이익}(\mathbf{Y}^T) = \text{법인세부담액}/t \quad (1)$$

(업종별 표본)

$$TA_t = \beta_0 + \beta_1 LC_K + \beta_2 SIZE_t + \beta_3 LEV_t + \beta_4 ROA_t + \beta_5 OCF_t + \beta_6 MB_t + \beta_7 OWN_t + \beta_8 DA_t + YD + \varepsilon_t \quad (3)$$

(총표본)

$$TA_t = \beta_0 + \beta_1 LC_K + \beta_2 LC_K * ID_t + \beta_3 ID_t + \beta_4 SIZE_t + \beta_5 LEV_t + \beta_6 ROA_t + \beta_7 OCF_t + \beta_8 MB_t + \beta_9 OWN_t + \beta_{10} DA_t + YD + \varepsilon_t \quad (4)$$

<변수설명>

$TA(BTD, BTD_D)$	: 조세회피측정치 ;
LC_K	: 기업수명주기로, 각 단계별 더미변수 ;
LC_I	: 도입기이면 1, 아니면 0 ;
LC_G	: 성장기이면 1, 아니면 0 ;
LC_M	: 성숙기이면 1, 아니면 0 ;
LC_D	: 쇠퇴기이면 1, 아니면 0 ;
$SIZE$	: 총자산의 자연 로그값 ;
LEV	: 부채비율 ;
ROA	: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
OCF	: 영업활동 현금흐름/기초총자산 ;
MB	: 시가총액/자본의 장부가치 ;
OWN	: 대주주지분율 ;
DA	: 재량적 발생액 ;
YD	: 연도더미 ;
ID	: 산업더미 ;
ε	: 잔차항.

우선, 식(3)에서는 산업별 표본을 대상으로, 기업 수명주기별 조세회피수준의 차이가 산업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선행연구에서는 수명주기 단계별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과 관련하여 도입기와 쇠퇴기에 조세회피 성향이 낮고, 성장기와 성숙기에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우재·최승욱, 2015 ; 김상명·박성욱, 2016). 식(3)에서는 선행연구의 이러한 발견이 개별 산업별로 분석하였을 때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이에 따라 식(3)의 주요 관심변수는 LC_K 이다. 만약 기업수명주기별 조세회피수준이 산업별로 차별적으로 발생한다면 각 수명주기 단계에 해당하는 도입기(LC_I), 성장기(LC_G), 성숙기(LC_M) 및 쇠퇴기(LC_D)의 계수값의 부호 및 유의성은 산업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식(4)에서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수명주기가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분석을 위해서는 수명주기(LC_K)와 산업(ID)의 상호작용변수를 사용한다. 만약, 각 수명주기 단계별 조세회피수준이 특정 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한다면, 상호작용변수의 회귀계수인 β_2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또는 음(-)의 값을 가질 것이다.

한편, 위의 식(3) 및 식(4)에서 사용한 통제변수는 선행연구에 따라 주로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통제변수는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기업특성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2. 표본선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은 2000년에서 2014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12월 결산법인 중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한다. 변수추정에 필요한 기업자료는 KIS-VALUE에서 수집하였다. 이 때 세무이익이 음(-)으로 추정되는 기업은 조세회피성향이 낮거나, 조세회피유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인 15년 동안 관측치가 100개 미만인 업종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속값을 갖는 추정치에 대해서는 극단치의 값이 결과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위 1% 수준에서 winsorizing 하였다. 다음의 <표 2>는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표본의 산업 및 기업수명주기별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표 2>에서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 7,746개의 기업-연도 중 제조업이 5,918개로 가장 많은 비중(76.4%)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도소매업종에 속한 기업-연도가 533개(6.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532개(6.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457개(5.9%), 건설업이 306개(3.9%)로 구성되어 있다.⁵⁾

<표 2> 산업과 수명주기 단계별 표본 분포

산 업	수명주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합계
제조업	876	2,123	2,517	402	5,918
건설업	76	68	112	50	306
도소매업	109	165	176	83	53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1	230	186	45	53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4	141	242	30	457
합 계	1,176 (15.2%)	2,727 (35.2%)	3,233 (41.7%)	610 (7.9%)	7,746 (100%)

5) <표 2>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전체 관측치 중 제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제조업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하더라도 각 업종별 기업수명주기의 분포를 보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제조업종과 비교하여 다른 업종에서 기업수명주기 분포 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기업수명주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로 살펴봄에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가 제조업 편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수명주기 분포를 보면, 총 7,746개의 기업-연도 중 1,176개(15.2%)는 도입기에, 2,727개(35.2%)는 성장기에, 3,233개(41.7%)는 성숙기에, 610개(7.9%)는 쇠퇴기에 분포되어 있다. 이를 업종별로 다시 나누어 살펴보면, 제조업의 5,918개 기업-연도는 도입기 876개, 성장기 2,123개, 성숙기 2,517개, 쇠퇴기 402개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 또한 건설업은 도입기 76개, 성장기 68개, 성숙기 112개, 쇠퇴기 50개로 구성되며, 도소매업은 도입기 109개, 성장기 165개, 성숙기 176개, 쇠퇴기 83개의 기업-연도로, 서비스 산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전체 532개 중 도입기 71개, 성장기 230개, 성숙기 186개, 쇠퇴기 45개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

IV.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표 3>은 본 연구의 표본을 수명주기 단계별로 나누어,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표 3〉 수명주기 단계별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Q1(25%)	중위수	Q3(75%)
도입기 (N=1,176)	BTD	-0.061	0.088	-0.101	-0.043	-0.006
	BTD_D	-0.062	0.087	-0.101	-0.045	-0.007
	SIZE	25.313	1.357	24.411	25.128	25.978
	LEV	0.467	0.170	0.352	0.468	0.591
	ROA	0.005	0.121	-0.023	0.019	0.056
	OCF	-0.069	0.076	-0.093	-0.041	-0.017
	MB	0.687	0.631	0.258	0.459	0.883
	OWN	0.373	0.186	0.239	0.377	0.506
	DA	-0.078	0.125	-0.136	-0.068	-0.020
성장기 (N=2,727)	변수	평균	표준편차	Q1(25%)	중위수	Q3(75%)
	BTD	0.0102	0.0817	-0.0287	0.008	0.047
	BTD_D	0.0098	0.0818	-0.0286	0.007	0.046
	SIZE	25.314	1.411	24.356	25.068	26.006
	LEV	0.415	0.170	0.284	0.424	0.542
	ROA	0.072	0.112	0.019	0.055	0.109
	OCF	0.105	0.106	0.037	0.075	0.137
	MB	0.798	0.683	0.308	0.557	1.047
	OWN	0.385	0.176	0.268	0.386	0.509
	DA	0.010	0.095	-0.038	0.004	0.048

〈표 3〉 수명주기 단계별 기술통계량 (계속)

	변수	평균	표준편차	Q1(25%)	중위수	Q3(75%)
성숙기 (N=3,233)	BTD	0.014	0.0679	-0.021	0.010	0.048
	BTD_D	0.013	0.0676	-0.022	0.009	0.046
	SIZE	25.770	1.428	24.778	25.516	26.505
	LEV	0.384	0.184	0.233	0.378	0.522
	ROA	0.070	0.080	0.027	0.061	0.104
	OCF	0.121	0.086	0.063	0.103	0.158
	MB	0.745	0.618	0.316	0.541	0.966
	OWN	0.387	0.187	0.262	0.387	0.518
	DA	0.029	0.083	-0.015	0.021	0.064
쇠퇴기 (N=610)	변수	평균	표준편차	Q1(25%)	중위수	Q3(75%)
	BTD	-0.068	0.084	-0.110	-0.049	-0.010
	BTD_D	-0.067	0.083	-0.109	-0.051	-0.011
	SIZE	25.449	1.334	24.530	25.151	26.117
	LEV	0.453	0.204	0.301	0.454	0.607
	ROA	-0.013	0.137	-0.050	0.009	0.048
	OCF	-0.066	0.069	-0.090	-0.047	-0.018
	MB	0.573	0.545	0.230	0.395	0.691
	OWN	0.357	0.199	0.206	0.352	0.493
	DA	-0.058	0.130	-0.123	-0.060	-0.001

주) BTD, BTD_D : 조세회피측정치 ; SIZE :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 LEV : 총부채/총자산 ; MB : 시가총액/자본의 장부가치 ; ROA :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 OCF : 영업현금흐름/기초 총자산 ; OWN : 대주주지분율 ; DA : 재량적 발생액

2. 상관관계 분석

〈표 4〉는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사용한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종속변수인 조세회피도(BTD, BTD_D)와 기업수명(LC_k)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는 수명주기 단계별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구체적으로, 도입기(LC₁)는 음(-)의 관계, 성장기·성숙기는 양(+)의 관계, 쇠퇴기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발견과 일치한다. 그리고 기타 통제변수와의 관계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부채비율은 음(-)의 관계를 나타냄)를 보임으로써 선행연구의 발견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

	BTD	BTD_D	LC _i	LC _G	LC _M	LC _b	SIZE	LEV	ROA	OWN	MB	OCF
BTD_D	0.994 <.0001											
LC _i	-0.281 <.0001	-0.282 <.0001										
LC _G	0.135 <.0001	0.137 <.0001	-0.309 <.0001									
LC _M	0.191 <.0001	0.187 <.0001	-0.357 <.0001	-0.628 <.0001								
LC _b	-0.217 <.0001	-0.215 <.0001	-0.122 <.0001	-0.214 <.0001	-0.247 <.0001							
SIZE	0.023 <.0001	-0.010 <.0001	-0.060 <.0001	-0.105 <.0001	0.152 <.0001	-0.014 <.0001						
LEV	-0.107 <.0001	-0.115 <.0001	0.125 <.0001	0.011 <.0001	-0.135 <.0001	0.064 <.0001	0.243 <.0001					
ROA	0.575 <.0001	0.576 <.0001	-0.192 <.0001	0.119 <.0001	0.122 <.0001	-0.182 <.0001	-0.123 <.0001	-0.184 <.0001				
OWN	0.060 <.0001	0.057 <.0001	-0.019 <.0001	0.013 <.0001	0.022 <.0001	-0.039 <.0001	0.016 <.0001	-0.076 <.0001	0.054 <.0001			
MB	0.138 <.0001	0.145 <.0001	-0.036 <.0001	0.064 <.0001	0.005 <.0001	-0.076 <.0001	-0.105 <.0001	-0.285 <.0001	0.291 <.0001	-0.047 <.0001		
OCF	0.523 <.0001	0.529 <.0001	-0.498 <.0001	0.204 <.0001	0.347 <.0001	-0.340 <.0001	-0.033 <.0001	-0.153 <.0001	0.493 <.0001	0.011 <.0001	0.233 <.0001	
DA	0.012 <.0001	0.016 <.0001	-0.306 <.0001	0.073 <.0001	0.236 <.0001	-0.158 <.0001	0.071 <.0001	0.002 <.0001	-0.356 <.0001	-0.044 <.0001	-0.037 <.0001	0.504 <.0001

주1) 상관관계의 분석표는 Pearson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각 구성항목은 상관관계 계수값(P-value 값)을 나타낸다.

주2) 변수설명은 <표 3>을 참고.

한편, 수명주기와 주요 설명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부채비율(LEV)은 도입기, 성장기 및 쇠퇴기에는 양(+)의 관계, 성숙기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성숙기에 부채상환으로 인한 부채비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와 일치한다. 또한, 성장기와 성숙기에 수익성(ROA)과의 유의한 양(+)의 관계 역시 현금흐름 패턴에 따른 수명주기의 구분이 예측대로 잘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3. 회귀분석결과

<표 5>는 기업수명주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산업별 표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에는 식(3)이 이용되었다. <표 5>에서는 간결성을 위해, 관심변수인 기업수명주기 각 단계별 계수값만을 산업표본 별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먼저 제조업의 경우 종속변수인 조세회피정도로 BTD(BTD_D)를 이용하였을 때 도입기와 쇠퇴기의 회귀계수 값은 각각 1%(1%) 및 1%(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인 반면, 성장기에는 5%(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숙기의 회귀계수 값은 양의 값을 갖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제조업의 경우 성장기에 조세회피수준이 높고, 도입기와 쇠퇴기에는 그 수준이 낮음을 의미하며, 이는 선행연구의 발견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표본을 보건대 상장기업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로 선행연구의 결과가 주로 제조업종에서 기인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건설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도입기 및 성장기의 회귀계수는 각각 음(-) 및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반면, 성숙기 이후에는 기업수명주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소매업을 살펴보면, 성장기까지는 기업수명주기가 해당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가, 성숙기에 조세회피 성향이 높고, 쇠퇴기에는 그 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각 단계별 통계적 유의성은 각각 5% 및 1% 수준이다. 다음 행에서 출판·영상·방송서비스업의 경우는 도입기에 조세회피성향이 낮으며, 이는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단계인 성장기, 성숙기 및 쇠퇴기에는 수명주기가 기업의 조세회피 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특이하게 도입기부터 조세회피수준이 높았으며, 성장기와 성숙기에는 그 영향이 없다가 쇠퇴기에 조세회피수준이 낮아졌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기업수명주기별 조세회피 수준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한다. 즉, 산업별로 조세회피수준에 미치는 요인들에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요소는 기업수명주기 각 단계별로 차이가 있어, 기업수명주기별 조세회피 성향이 산업별로 차이가 발생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표 5〉 산업별 기업수명주기와 조세회피의 관계(산업표본)_요약표

$$TA_{i,t} = \beta_0 + \beta_1 LC_{i,K}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ROA_{i,t} + \beta_5 MB_{i,t} + \beta_6 OCF_{i,t} \\ + \beta_7 OWN_{i,t} + \beta_8 DA_{i,t} + YD + \varepsilon_{i,t}$$

산업분류	TA	도입기 (LC _i)		성장기(LC _G)		성숙기(LC _M)		쇠퇴기(LC _D)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제조업 (N=5,918)	BTD	-0.0088	-3.46***	0.0040	2.48**	0.0021	1.25	-0.0090	-2.83***
	BTD_D	-0.0093	-3.70***	0.0037	2.30**	0.0023	1.36	-0.0075	-2.38**
건설업 (N=306)	BTD	-0.0217	-2.24**	0.0273	3.06***	-0.0019	-0.20	-0.0095	-0.89
	BTD_D	-0.0212	-2.14**	0.0288	3.16***	-0.0017	-0.18	-0.0125	-1.14
도소매업 (N=533)	BTD	-0.0027	-0.33	0.0020	0.30	0.0148	2.23**	-0.0243	-2.89***
	BTD_D	-0.0021	-0.26	0.0019	0.30	0.0140	2.17**	-0.0235	-2.88***
출판·영상 방송 (N=532)	BTD	-0.0423	-3.01***	0.0111	1.26	0.0090	1.02	-0.0115	-0.74
	BTD_D	-0.0395	-2.84***	0.0092	1.05	0.0099	1.13	-0.0115	-0.75
전문·과학 기술 (N=457)	BTD	0.0211	1.97**	0.00001	0.00	0.0017	0.26	-0.0337	-2.76***
	BTD_D	0.0225	2.11**	-0.0003	-0.04	0.0011	0.17	-0.0326	-2.67***

주1) BTD(BTD_D) : 조세회피측정치 ; SIZE :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 LEV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 ROA : 자산수익성(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 MB : 성장성(시가총액/자본의 장부가치) ; OCF : 영업현금흐름/기초총자산 ; OWN : 대주주지분율 ; DA : 수정 Jones 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

주2) *, **, ***은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양측검증)을 나타냄.

<표 6>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기업수명주기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산업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이다. 분석을 위해서는 식(4)가 이용되었다. <표 6>에서는 <표 5>와 같이 간결성을 위해 주요 관심변수인 수명주기(LC_k)와 상호작용변수(LC_k*ID)의 회귀계수 값만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수명주기 각 단계별로 해당 산업이 다른 산업들에 비해 조세회피수준이 더 높으면 β₂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조세회피수준이 더 낮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질 것이다.

도입기의 분석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조세회피수준이 낮은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ID를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회귀분석 했을 경우 LC₁*ID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다. ID를 건설업 또는 도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회귀분석 했을 경우에는 LC₁의 회귀계수 값은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인 반면 LC₁*ID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데, 이는 도입기에 타업종에서 나타난 낮은 조세회피성향이 건설업 또는 도소매업에서 역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즉, 건설업 또는 도소매업의 조세회피 성향도 도입기의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낮은 것이다.

한편, ID를 출판·영상·방송통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회귀분석 했을 경우 LC_1 와 LC_1*ID 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출판·영상·방송통신 서비스업은 도입기에 다른 산업군과 비교하여 조세회피 성향이 더욱 낮음을 의미한다. 해당 산업군의 경우 사업초기에 거대한 설비투자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외부자금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 이에 따라 과세소득을 낮추려는 유인보다는 재무보고이익을 높이려는 유인이 커 조세회피 성향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외부자금 조달로 인해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다보니, 이에 따른 절세효익을 누려 상대적으로 조세회피에 대한 유인이 낮아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ID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회귀분석 했을 경우 LC_1 의 회귀계수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인 반면, LC_1*ID 의 회귀계수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초기에 다른 업종에 비해 초기투자비용이 낮다보니 감세수단이 적어 사업초기부터 조세회피성향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한다.

다음으로 수명주기단계 중 성장기와 성숙기의 분석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성장기(LC_G)와 성숙기(LC_M)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성장기의 높은 조세회피 성향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타 산업과 비교하여 성숙기에 조세회피성향이 더욱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타 산업과 비교하여 성숙기에 오히려 조세회피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설업의 조세회피성향이 금융비용 부담수준에 민감하다는 선행연구의 발견과 일치한다(고윤성·이정화, 2008). 즉, 성숙기에는 외부자금에 대한 수요가 낮아 금융비용 지출 역시 적게 발생하는데, 이에 따라 단기 유동성이 더욱 풍부해져 당장의 현금유출을 줄이려는 공격적인 조세회피를 할 유인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쇠퇴기의 분석결과를 보면, 대부분 업종에서 쇠퇴기에 조세회피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ID를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회귀분석 했을 경우 LC_D*ID 는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다. 또한, ID를 도소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서비스업, 또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회귀분석 했을 경우 LC_D 의 회귀계수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인 반면, LC_D*ID 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쇠퇴기에 해당 업종의 조세회피성향이 그 외 업종의 쇠퇴기에 낮은 조세회피 성향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ID를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회귀분석 하였을 경우에는 LC_D*ID 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쇠퇴기에 건설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

〈표 6〉 기업수명주기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산업이 미치는 효과(전체표본)_요약표

$$TA_t = \beta_0 + \beta_1 LC_K + \beta_2 LC_K * ID_t + \beta_3 ID_t + \beta_4 SIZE_t + \beta_5 LEV_t + \beta_6 ROA_t \\ + \beta_7 MB_t + \beta_8 OCF_t + \beta_9 OWN_t + \beta_{10} DA_t + YD + \varepsilon_t$$

산업 분류	TA	변수	도입기(LC _I)		성장기(LC _G)		성숙기(LC _M)		쇠퇴기(LC _D)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제조업	BTD	LC _K	0.000002	0.00	0.0002	0.06	0.0009	0.30	-0.0059	-1.27
		LC _K *ID	-0.0149	-3.33***	0.0065	1.89*	0.0035	1.07	-0.0095	-1.71*
	BTD_D	LC _K	0.0014	0.35	-0.0009	-0.30	0.0007	0.24	-0.0047	-1.02
		LC _K *ID	-0.0169	-3.79***	0.0074	2.17**	0.0039	1.20	-0.0095	-1.72*
건설업	BTD	LC _K	-0.0119	-5.04***	0.0049	3.15***	0.0043	2.68***	-0.0137	-4.76***
		LC _K *ID	0.0103	1.21	0.0137	1.56	-0.0212	-2.80***	0.0182	1.82*
	BTD_D	LC _K	-0.0121	-5.15***	0.0044	2.90***	0.0044	2.77***	-0.0124	-4.31***
		LC _K *ID	0.0109	1.29	0.0152	1.75*	-0.0216	-2.87***	0.0154	1.55
도소매업	BTD	LC _K	-0.0117	-4.92***	0.0055	3.53***	0.0030	1.89*	-0.0118	-3.98***
		LC _K *ID	0.0081	1.16	-0.0056	-0.93	0.0100	1.69*	-0.0083	-1.04
	BTD_D	LC _K	-0.0120	-5.06***	0.0051	3.31***	0.0032	2.02**	-0.0107	-3.62***
		LC _K *ID	0.0103	1.48	-0.0063	-1.05	0.0080	1.36	-0.0069	-0.88
출판영상방송	BTD	LC _K	-0.0102	-4.35***	0.0055	3.49***	0.0027	1.67*	-0.0122	-4.26***
		LC _K *ID	-0.0152	-1.85*	-0.0033	-0.58	0.0065	1.11	0.0113	1.12
	BTD_D	LC _K	-0.0103	-4.44***	0.0051	3.27***	0.0028	1.71*	-0.0108	-3.79***
		LC _K *ID	-0.0138	-1.69*	-0.0034	-0.60	0.0062	1.07	0.0103	1.03
전문과학기술	BTD	LC _K	-0.0127	-5.42***	0.0054	3.44***	0.0040	2.47**	-0.0114	-3.98***
		LC _K *ID	0.0378	3.75***	-0.0052	-0.80	-0.0079	-1.30	-0.0114	-0.94
	BTD_D	LC _K	-0.0128	-5.49***	0.0050	3.19***	0.0041	2.54**	-0.0101	-3.56***
		LC _K *ID	0.0392	3.91***	-0.0052	-0.81	-0.0084	-1.39	-0.0111	-0.92

주1) BTD (BTD_D) : 조세회피측정치 ; LC_K : 기업수명주기 더미변수 ; ID : 산업(업종)

주2) *, **, ***은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양측검증)을 나타냄.

V. 결 론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기업수명주기라는 기업특성뿐만 아니라 산업특성까지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은 도입기부터 성장기, 성숙기 및 쇠퇴기에 거친 기업수명주기 동안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기업수명주기 중 도입기와 쇠퇴기에는 과세소득이 적게 발생할 것이므로 공격적인 조세전략을 구사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성장기와 성숙기에는 높은 이익을 보고하더라도 세금은 낮추기 위해 기업은 여러 조세전략을 계획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기업의 그 수명주기에 따른 이와 같은 조세전략은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특성은 기업수명주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업수명주기에 따른 조세회피성향이 산업별로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분석을 위해 기업수명주기로는 Dickinson(2011)의 현금흐름패턴을 이용한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수명주기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제조업의 경우 도입기와 쇠퇴기의 음(-)의 관계, 성장기와 성숙기에는 양(+)의 관계가 나타났으나, 그 외의 산업에서는 양자간의 관계 및 그 유의성에서 일부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명주기와 산업의 상호작용변수를 이용하여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기업수명주기별 조세회피수준이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도입기에는 제조업을 비롯하여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조세회피성향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이러한 성향은 출판·영상·방송통신 서비스업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도입기에 조세회피 성향이 높았다. 그리고 성장기의 높은 조세회피 성향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성숙기에 조세회피성향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쇠퇴기에는 대부분 업종에서 조세회피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설업의 경우 쇠퇴기에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조세회피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 연구에서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을 기업특성 또는 산업특성에 따라 단편적으로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기업특성과 산업특성을 결합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 산업에 따른 수명주기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일부 산업의 경우 그 수가 지나치게 적어 모든 산업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한계점이 있다.

참고문헌

- 고영우 · 권수영 · 황문호. 2009. “기업수명주기가 판매관리비의 비대칭적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감사연구 제49호 : 283-312.
- 고윤성 · 김재승. 2012. “기업수명주기에 따른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0권 제1호 : 163-187.
- 고윤성 · 이정화. 2008. “산업별 조세회피요인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1권 제6호 : 2823-2848.
- 곽수근 · 송혁준. 2003. “경제상황 및 산업특성에 따른 회계정보의 주가관련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1권 : 1-24.
- 권수영 · 문보영. 2009. “기업수명주기 하에서 자기자본이익률의 구성요소와 미래수익성 및 가치관련성”. 경영학연구 제38권 제5호 : 1213-1249.
- 권영도. 1996. “기업라이프사이클과 장부가치구성요소가 주식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1권 제2호 : 46-72.
- 김경애 · 김재범. 2010. “산업별 차이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5권 제1호 : 103-129.
- 김광용 · 정수용. 1999. “소기업신용평가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21권 제1호 : 229-257.
- 김상명 · 박성욱. 2016. “현금흐름패턴을 이용한 기업수명주기와 조세회피의 관계”. 회계저널 제25권 제6호 : 135-158.
- 김성환 · 손성규. 2011. “산업별회계정보의 품질에 대한 실증연구”. 회계학연구 제36권 제3호 : 179-215.
- 김영락. 2006. “제조업과 건설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제19권 : 1-20.
- 김진배. 2004. “한국기업의 회계투명성 측정. 회계와 감사연구 제40권 : 27-53.
- 김태수 · 정준수 · 지성권. 1999. 한국기업에서 경영자보상과 경영성과간의 관계. 회계학연구 제24권 제2호 : 87-116.
- 김학수. 2015.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재정포럼 제226권 : 52-55.
- 박 원 · 권예경. 2011. “기업수명주기에 따른 연구개발 지출의 가치관련성”. 세무회계연구 제30권 : 85-103.
- 박 원 · 박상규. 2010. “기업수명주기에 따른 회계이익과 순자산의 가치관련성”. 경영학연구 제39권 제6호 : 1451-1476.
- 박춘래 · 최평윤. 1997. “납세자 특성에 따른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0권 : 97-128.
- 배한수 · 김경화. 2013. “기업수명주기별 실제 이익조정이 경영성과와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

- 향”. 회계정보연구 제31권 제1호 : 241-266.
- 백원선 · 박성진. 2013. “기업수명주기, 수익비용대응 및 차별적 비용인식”. 회계학연구 제38권 제2호 : 215-245.
- 심충진. 2005. “산업정책과 조세부담”. 세무학연구 제22권 제2호 : 97-123.
- 이완중 · 유희경. 2007. “외식사업자의 조세공평성인식과 조세회피성향 분석”. 외식경영연구 제10권 제4호 : 29-51.
- 이우재 · 최승욱. 2015. “수명주기에 따른 기업의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와 조세 회피 성향”. 산업경제연구 제28권 제1호 : 381-402.
- 최 관 · 문해원 · 조은혜. 2015. “기업수명주기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간의 관계”.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015권 : 1868-1899.
- 최현섭 · 장지인 · 신상철. 2006. “기업수명주기별 회계이익과 현금흐름의 상대적 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35권 제5호 : 1339-1360.
- Anthony, J. and K. Ramesh. 1992. Association between accounting performance measures and stock prices : A test of the life cycle hypothesi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5(2-3) : 203-227.
- Barclay, M. J. and C. W. Smith, Jr. 1995. The maturity structure of corporate debt. *Journal of Finance* 50(2) : 609-631.
- Bens, D., V. Nagar, and M.H.F. Wong. 2002. Real investment implications of employee stock option exercis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0(2) : 359-393.
- DeAngel. H. and R. Masulis. 1980. Optimal capital structure under corporate and personal taxatio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1) : 3-29.
- DeAngelo, H., L. DeAngelo. and R. Stulz. 2006. Dividend policy and the earned/contributed capital mix : A test of the life cycle theor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1(2) : 227-254.
- Desai M. A., D. Dharmapala. 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1) : 145-179.
- Dickinson, V. 2011. Cash flow patterns as a proxy for firm life cycle. *The Accounting Review* 86(6) : 1969-1994.
- Gordon, G. 1985. The relationship of corporate culture to industry sector and corporate performance. *Gaining control of the corporate culture* 103 : 125.
- Hribar, P., and N. Yehuda. 2008. Reconciling growth and persistence as explanations for accrual mispricing. *Working Paper*. Cornell University.
- Jovanovic, B. 1982. Selection and the evolution of industry. *Econometrica :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 649-670.

- Miller, D., and P. H. Friesen. 1980. Momentum and revolution in organizational adap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3(4) : 591–614.
- Phillips, M. E. 1994. Industry mindsets : Exploring the cultures of two macro—organizational settings. *Organization Science* 5(3) : 384–402.
- Reynolds, P. D. 1986. Organizational culture as related to industry, position and performance :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23(3) : 333–344.
- Rumelt, R. 1991. How much does industry matter?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2(3) : 167–185.
- Spence, M. 1981. The learning curve and competi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12 : 49–70.
- Wernerfelt, B. 1985. The dynamics of prices and market shares over the product life cycle. *Management Science* 31(8) : 928–939.
- Wernerfelt, B., and C. Montgomery. 1988. Tobin's Q and the importance of focus in firm performanc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 246–250.

The Effect of Industry Membership and Corporate - life - cycle on Tax Avoidance

Sang Myung Kim^{*} · Sung Ook Park^{**} · Heesun Chung^{***}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corporate - life - cycle combined with the industry membership influences tax avoidance behavior. Prior literature finds that corporate life cycle influences a firm's tax avoidance behavior, and firm characteristics to induce aggressive tax behavior rely on the industry membership. This suggests that the effect of corporate - life - cycle on tax avoidance would be affected by a firm's industry membership.

Our empirical findings reveal that firms do not tend to engage in aggressive tax activities at the introduction stage. On the other hand, firms in the industry of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exhibit high level of tax avoidance even at the introduction stage. We interpret that these firms bear lower initial investment costs, which induces lower tax shield, and thus they tend to have stronger incentives to engage in aggressive tax planning from the start. Next, the tendency to aggressive in tax planning at the growth stage is more pronounced in the industry membership of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 a case of the maturity stage, while firms in the industry of wholesale and retail trade are more aggressive in tax planning, firms in the industry of construction exhibit less aggressive tax activities compared with those in the other industry.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finding of prior studies that corporate tax avoidance behavior of firm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e sensitive to financial costs. Namely, due to the low necessity for external financing, such firms at the maturity stage have high liquidity, thus they are less incentivized to engage in aggressive tax planning. With regard to the decline stage, firms in the industry of construction are shown to be more aggressive in tax activiti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in a sense that it explains corporate tax behavior through firm characteristics as well as industry characteristics in multiple perspectives.

〈Key words〉 tax avoidance, corporate - life - cycle, industry membership, cashflow

* Ph.D., Tax accountant,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ktax0732@naver.com, First Author

** Professor,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sopark@khu.ac.kr, Corresponding Author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jong University, hschung@sejong.ac.kr, Co - author